

고군산군도, 한국관광100선 선정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관광명소... 향후 2년간 국내외 각종 홍보 혜택 제공

군산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공동으로 선정한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관광명소 2023~2024 한국관광 100선에 고군산군도가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한국관광 100선”은 내국인은 물론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이 꼭 가볼만한 대표관광지 100개소를 2년 단위로 선정해 홍보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3년 시작돼 6회째를 맞이했다.

시는 “산들이 노니는 섬”으로 표현되는 천혜의 자연경관이 가진 아름다움과 함께 2017년 새만금방조제와 고군산 연결도로의 개통 이후 편리해진 접근성과 주차장·관광 안내 서비스 등 관광 편의시설 개선으로 여행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된 점 선유스카이선



라인 등 익사이팅 레저체험 시설의 도입과 다채로운 벽화로 마을 전체를 꾸민 신시도 어촌체험마을, ‘작은 모세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무녀도의 쥐뿔섬, 장자도의 할매바위와 대장봉 방축도의 출렁다리과 독립문 바위 등 개별

섬들의 개성있는 매력을 소개했다. 또, 시에서 추진중인 사업을 토대로 향후 발전 가능성을 제시한 점이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되는 데에 주요한 것으로 보인다. /군산=김판곤 기자

익산 왕궁리유적 ‘한국관광 100선’ 선정

작년 ‘미륵사지’ 이어 2년 연속 선정 쾌거... 명실상부 대표 관광지로 부상

‘익산 왕궁리유적’이 2023~2024년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되며 내·외국인이 꼭 가봐야 할 대한민국 대표 관광지로 부상하고 있다.

문화체육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하는 ‘한국 관광 100선’은 내국인을 비롯하여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이 꼭 가볼 만한 대표 관광지 100개소를 2년에 한 번씩 선정해 홍보하는 사업으로, 이번에도 6회째를 맞이했다.

익산시는 지난해 미륵사지에 이어 2년 연속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되면서 명실상부한 세계문화유산 관광도시로 도약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익산 왕궁리유적은 올 약 12만여 명이 찾은 백제역사지구로 무왕이 꿈꾼 백제왕궁을 만나볼 수 있는 곳이다. 왕궁리 오층석탑을 비롯한 백제왕궁



의 일상을 엿볼 수 있는 유적과 봄에는 벚꽃 명소로 여름에는 달빛 아래 왕궁을 거니는 고품격 야간경관명소로 유명세를 타고 있다. 특히 지난 8월에는 왕궁리 일원에서

사흘간 펼쳐진 2022 익산문화제야행이 펼쳐져 달빛을 따라 왕궁 일대 감상과 미디어파사드, 유적지에 누워 별명 등으로 관광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익산=이재춘 기자

익산시의회 예결위, 내년 예산안 심사 돌입

익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조남석)는 지난 12일부터 16일까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에 돌입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조남석 위원장, 이종현 부위원장, 강경숙 위원, 김경진 위원, 손진영 위원, 송영자 위원, 조은희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2023년 6월 30일까지 익산시의 살림

살이를 심의하고 결정하게 된다. 익산시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1조 6,631억원으로, 올해 대비 942억원이 증액된 규모로, 이 중 일반회계는 1조 5,375억원, 특별회계는 1,256억원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청년정책에 중점을 예산안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철저히 살펴,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꼼꼼히 심사할 계획이다. 조남석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경기부양과 민생안정이 최우선 과제인 만큼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역점을 두고 심사하며, 복지사각지대를 위한 예산도 챙기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한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오는 20일 열리는 제2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해 최종확정할 예정이다. /익산=이재춘 기자



익산 청년시청에 대기업과 공공기관의 취업문이 활짝 열려 취업 예정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청년시청 첫 취업 JOB 콘서트

익산시, 대기업·공공기관 취업문 ‘활짝’

익산 청년시청에 대기업과 공공기관의 취업문이 활짝 열려 취업 예정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13일 시에 따르면 ‘청년취업 JOB콘서트’가 익산청년시청에서 도내 관련학과 대학생 60여명이 모인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콘서트에는 지역 대기업인 (주)하림, (주)C화학, 삼양식품(주)과 도내 공공기관인 국민연금관리공단, 한국전력공사전북본부,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이 참여했다.

시는 청년시청 개청 기념으로 지역 내 대기업과 공공기관을 알리고 기존 취업박람회 형식에서 벗어나 청년취업을 심도있게 돕기위해 ‘토코콘서트’로 진행했다.

특히 청년들은 1대1만남을 통해 실무자 멘토링을 받을 수 있어 기업·기관에 관한 궁금증을 해소했다.

시는 원활한 진행을 위해 ‘청년취업 JOB콘서트’ 개최 한달 전부터 참여기

업 및 공공기관에 관심이 있는 청년구직자 60명을 모집했다.

또 기업 및 기관 인사담당자가 참여하는 SNS 대화방을 개설해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교류하고 ‘청년취업 JOB콘서트’ 당일에는 대면으로 심층 취업상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했다.

이 밖에도 공공일자리 부스(뉴딜일자리 등), 청년시청 투어, 이미지 컨설팅도 함께 운영했다.

청년시청에서 상설 운영중인 상담부스에서는 청년들을 위한 취·창업 정책, 주거정책, 복지, 문화 등 유용한 정보를 안내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취업 콘서트를 기점으로 내년부터는 매일 정기적으로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취업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익산 청년일자리센터(☎ 063-837-0401) 1층 취업상담창구에서 종합고용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익산=이재춘기자

지역 소식통

군산시 하수과, 개인 배수설비 유지관리 홍보

군산시가 가정 배수설비의 올바른 사용법과 관련한 홍보물 제작에 배포하며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시는 13일 시민들의 주거환경 및 보건위생 개선을 위해 시내 곳곳에서 우·오수 분류와 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각 가정 내 배수설비 기능을 알리고 매년 많은 예산의 유지관리 비용이 발생함에 따라 가정배수 설비의 올바른 사용법을 홍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부분의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오수는 내부 배수설비를 통해 공공오수관로에 연결돼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유입 후 처리되고 있다. 하지만 개인 배수설비 유지·관리 미흡으로 매년 공공오수관로 및 개인 배수설비가 막힐 현상 등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군산=김판곤기자

군산시, 사회복지시설 원예치유 프로그램 운영

군산시가 실의활동이 제한된 복지시설 이용자의 정서안정과 농업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원예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13일 시에 따르면 찾아가는 원예치유 프로그램은 도시농업 사업 일환으로 총 3회차로 진행됐으며, 각 회차별로 식물을 만지고 기르는 과정에서 촉각, 시각, 후각 등 다양한 감각을 자극해 신체적·정서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

농업기술센터는 시 복지환경국과 연계, 찾아가는 원예치유 프로그램 수요조사를 통해 관내 사회복지시설 14개소 152명을 모집했다.

지난달 22일에서 30일까지 아동·노인·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의 대상에게 계절식물 심기를 주제로 1회차 프로그램을 추진했으며 오는 21일까지 ‘공기정화식물 알아보기’, ‘나만의 트리 만들기’ 등의 주제로 활동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김미정 농촌자원과장은 “이런 원예활동의 치료효과를 통해 복지시설 등 정서취약계층이 위로 받는 시간을 갖기 바란다”고 밝혔다. /군산=김판곤 기자

윤신애 군산시의원, 세미나 패널 참석

군산시의회 윤신애 의원이 최근 장미공원에서 열린 군산시 지역 특성에 따른 문화생태 예측 활성화 세미나 패널로 참석했다.

이날 세미나는 군산의 생태와 역사 문화를 엮어 지속 가능한 군산의 미래 생태 체험교육을 모색하고 지역 자원을 미래 생태체험 콘텐츠로 활용하여 가족 중심의 교육 체험 관광과 연계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표자는 백인환 생물다양성정보연구소장과 배용진 여행기획가, 황호성 국립경북대학교 자연사박물관 박사가 참석했다.

패널로는 윤신애 군산시의원, 이시완 한국환경생태연구소대표, 유희영 군산



YMCA 사무국장 유기택 한국조류보호협회 군산지회 사무국장이 참석해 군산의 미래 문화생태 예측을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윤신애 군산시의원은 “군산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생태 자원을 활용해 군산의 미래 교육을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